

돈 끼호떼와 오뒷세우스와 나

불어불문학과 2017***** 유정현

가끔은 노천극장의 변두리 청단풍 그늘에 앉아 마냥 위를 우러러 보게 되는 때가 있다. 푸른 하늘 아랫 잎 하나하나의 그림자마저 청초하다. 청명한 쪽빛이 잎 사이사이로 흘러내리고, 바람이 불적에 날카로운 잎들은 하늘에 묻히어 가듯 투명하게 사운거린다. 그럴 때이면 평소에는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던 하늘이 너무도 위대하게 느껴진다. 그 광활한 쪽빛 대양 속에 나는 그저 파도에 밀려 거품 이는 실구름에 불과한 듯한 느낌이 든다. 바다의 얇은 탄식과도 같은 솔개바람에 일시의 형체로 뭉쳐있는 구름은 곧 지평선을 향해 산산이 흩어지고 만다. 오뒷세우스의 온 함선들과 수많은 전우들이 대양 한가운데 포세이돈의 파도에 덧없이 스러져 버렸듯, 드넓은 하늘을 보고 있자면 나 역시 그렇게 끊임없이 무너지는 작은 존재라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진다.

더 막막한 것은 그 푸르른 하늘에서 나 스스로가 무엇을 찾아야 할 것만 같은 직감에 있다. 그러나 무엇을 찾아야 하는 걸까? 낮 하늘에 숨겨져 있는 별들을 헤집고 어느 이름을 찾아 헤매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를테면 천상의 미녀, 엘 포보소의 돌시네아의 이름이라도 부르짖으며 먹먹히 흘러가는 하늘을 울려야 할까? 모르겠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임에 다름없다. 어찌면 난 『옥루몽』의 문창성(文昌星)처럼 속세의 바람에 흔들려 하늘에서 떨어어진 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늘은 야속히 하염없이 푸르기만 하여 돌아갈 자리는 알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종종 나는 나 스스로가 '왜 이러한지'를 덧없이 자문해 보곤 한다. 왜 하필이면 영국 문학도, 일본 문학도 아닌 불란서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대체 어찌다가 고등학교를 나와선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무슨 이유로 스스로를 '나'로 부르고 이 미약한 몸뚱아리에 갇혀버리게 되었는지 등등, 하여간 '왜'를 따지면 밑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상념들이 저마다 그럴싸한 대답을 내놓기는 하지만,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나오는 답변이 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을 보면 내 허망한 질문들에는 애초에 정확한 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스스로를 규정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도 없는 법이지만 난 가끔 위 같은 덧없는 질문들에 턱을 괴고 고심하고 있는 스스로가 매우 바보스럽게 느껴지곤 한다. 돈 끼호떼의 기발한 행적들을 지켜보는 내내 내심 부러움을 느꼈던 까닭은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거인을 풍차라며 만류하는 썬초의 목소리 따윈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망설임 없이 무시무시한 거인의 팔뚝에 창을 찔러 넣는 그의 풍채는 얼마나 당당하고 위엄 있는가! 그 어느 누구의 충고와 저주, 심지어는 유령의 경고에도 규범에 얽매이려 하지 않고 곳곳이 자기 가슴의 떨림만을 따르는 돈 후안의 분신을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밖에 밤[夜]이 어느 곳에도 얽매임 없이 자유로이 철흑으로 부유하는 것을 지켜볼 때면, 몸을 움아매는 방 안의 새하얀 불빛이 더욱 따갑게 느껴지곤 한다. 나는 거미줄에 붙잡힌 나비와도 같다. 맑은 날에 어느 나비가 푸른 하늘과 화려한 꽃들 사이를 두 하얀 날개로 나빌레는 광경을 볼 때면, 고향을 그리며 수평선까지 공허한 바다를 앞에 두고 눈물 흘리는 오뒷세우스처럼 아득한 그리움에 가슴이 젖는 것을 느낀다. 가끔은 두 눈을 감고 날개를 허공에 퍼덕여 보기도 한다. 그러나 눈을 뜨면 내 몸은 변함없이 진득한 거미줄에 붙어있다.

돈 끼호떼에게도, 오뒷세우스에게도 별이 있었다. 돈 끼호떼에게는 단 한 번도 대면해보지 못한 미지의 돌시네아가 그의 영원한 별이었다면, 오뒷세우스에게는 그리운 고향인 잇타케가 별이었다. 이는 세상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시공창의 쥐들이나, 사람들의 무자비한 발길에 짓밟히는 길가의 작은 풀잎들에게도 그들만의 별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즉 내게는 왜 없겠는가? 중학교 때 내게 별은 당시 내가 진학을 희망했던 고등학교였다. 그때 나는 순진하게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겹디 지겨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별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의심을 낮추고 순수히 맹목에 빠져 들어야 할지언니, 당시 별의 현란한 빛에 눈이 멀었던 나는 오직 그때 내가 경험하고 있었던 현실만이 부정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 믿는 한편, 내 앞에 어른거리는 별이 내 삶을 구원해줄 유일한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원적 사고방식이 널리 퍼진 오늘날 시대에는 확실히 20세기 냉전의 이분법적 이념만큼이나 구시대적인 소망이라 할 것이다. 따라야 할 빛, 그를 위해 배척해야 할 어둠, 너무도 간략한 이분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모든 생명의 원초적인 역동 방식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물론 이 소망의 끝은 현명한 이들이라면 예측할 수 있듯, 처참하고 절망적이었다. 강의 흐름이 바뀌고 나서야 이전의 급류가 얼마나 내 몸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피폐하게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고등학교의 숨 막히는 규율 체계 아래 나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허우적대다가 겨우 밖으로 빠져나왔다. 건강이 악화되어 마침내 자퇴서에 서명을 한 것은 학교에 들어간 지 일 년만이었다.

학교에서 나온 직후는 생애 내 육체와 정신 모두 가장 약화된 시기였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심정에 스스로를 방에 하루 종일 윤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연하다.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고 나서 충격에 여전히 비틀거리면서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떻게든 '할 일을 찾는 것'이었다. 방랑기사의 이상을 잃어버린 돈 끼호떼가 결국 힘마져 잃고 병석에 드러눕게 되었던, 삶의 원천은 공교롭게도 높이 떠있는 별,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는 데에 있는 듯하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띄운 별이 바로 프랑수아라는 새로운 언어였다.

난 '지나간 세월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요즘에는 거의 상투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말을 믿지 않는다. 과거를 아예 회상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또 모를까, 후회는 오직 단편적인 현재만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까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기억하는 자들의 탄식이다. 게다가 잘 생각해보면 후회라는 감정은 비단 과거의 실패에 비탄하는 덧없는 아우성만은 아닐 것이다. 후회는 인간의 주의가 가능성, 혹은 규정되지 않는 미래에 있는 데서 기원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헬리오스의 소들을 필경 해치고 만 전우들을 목격하고 재앙을 눈앞에 앞둔 오뒷세우스가,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동안 잠에 빠져있던 스스로를 한탄하고 자신에게 잠을 내린 신들을 나무라는 것 역시, 그의 정신이 그저 현실의 잔인한 운명에 국한되려 하지 않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다른 가능성들에 미치는 까닭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그가 귀향이라는 꿈을 어떤 현실에 맞닥뜨려도 버릴 수 없는 까닭이다. 요컨대, 후회는 인간으로 하여금 고정된 현실, 혹은 과거를 부정케 하고 다른 열린 가능성들을 더듬게 하는, 이른바 미래지향적인 촉매라고도 할 수 있겠다.

나는 후회를 꽤 많이 하는 편이다. 전에는 도가의 지혜를 받들어 아무 것에도 후회하지 않는 초연한 자세를 꿈꾼 적도 있었지만, 인간의 속된 정념마저 자연스런 하나로 받아들이라는 장자의 역설적인 가르침을 듣고는, 후회를 더 이상 부정하지만도 않기로 했다. 애초에 삶이라는 것은 후회의 연속임이 당연한 것일 터, 누구는 삶이 과거라는 까마득한 구멍을 채우는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했지 않았던가. 내 삶 역시 후회가 가득하다. 하지만 난 이를 오히려 긍정

적인 삶의 현상이라 본다. 과거에 시비를 추호도 의심치 않았던 일들에도 오늘에 이르러서는 후회가 가는 것을 보면 내 자신의 마음이 무척 신기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돈 끼호떼에게서 방랑기사의 이상에 대한 소망이 모두 빠져나갔을 때서야, 그가 비로소 과거 스스로의 믿음과 행적들을 몸소 경멸하게 되었듯, 현재라는 급류가 시간이 지나서 과거라는 흔적으로 보이는 목하, 당시 굳게 믿었던 것들은 한없이 우습게만 보이고, 여의주처럼 우러러 보았던 것들은 말뚝구슬보다도 더 보잘 것 없어 보일 뿐이다. 먼 귀향길의 풍파가 오뒷세우스를 세상의 온갖 재물들과 높은 자리에 대해 초연하게 만들었듯, 오늘날 내게 역시 고등학교 시절에는 당연하듯 떠받들었던 권위와 이름들은 그저 깨진 기왓장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옛 일들을 뒤돌아보며 ‘그때 그런 가치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거나, ‘그렇게 쓸데 없는 문제에 골머리를 앓을 시간에 차라리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를 하는 것은 분명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고, 달라져버린 강에서 옛 강의 흐름을 불평하게 되는 것은 —혹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시간의 강에 몸 담근 이들이라면 누구나 겪기 마련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삶에 오직 후회만이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게다가 예전에는 그저 후회스럽기 그지없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매우 다행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그저 고단하고 하루 빨리 벗어나기만을 염원했던 경험들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종종 향수의 파면을 일으키는 신선한 가을바람이 되어 회상의 수면을 부드럽게 훑고 가기까지 한다. 이는 여정을 이어가는 오뒷세우스 그 자신은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짙은 바닷물을 쉴 새 없이 들이키고, 전우들의 죽음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삼켜야 했던 것에 반해, 그 모험을 방 안에 편히 앉아 하나의 고정된 이야기로 담담히 읽어가는 오늘날 독자는 그저 오뒷세우스의 모험에 종종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속 편히 즐겨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것이다. 강에 몸을 담고 흘러가는 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대체 어디 있는지부터 매순간 자문하며 고뇌해야 한다. 강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해지지 않았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흐름의 속에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인간은 그 속에서 스스로의 선택을 앞두고 불안해하며 미리 내다보지 못한 바위에 긁혀 상처를 얻기도 한다. 이 험난한 강의 흐름을 태연히 관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강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자뿐이다. 과거를 회상하는 인간이 그 대표적인 예일 터이다. 정체를 가늠 못할 거대한 울림이 들려오는 밤중에는 그 근원을 알지 못해 공포에 떨었던 돈 끼호떼가 동이 트고 나서 소리의 근원이 물방아였다는 것을 알고서는 망연자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나오고 내 스스로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건지를 불안과 함께 끊임없이 자문해야 했던 옛 시절의 기억들도 지금 내게는 그저 단조롭고 안락하게만 보일 뿐이다.

오뒷세우스가 귀향을 위해 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망망대해를 항해해야 했듯이, 나 역시 하염없이 고향을 찾고 있다. 어둠이 드리운 방구석에서 나는 종종 불을 켜지 않고 창밖의 저녁 어스름이 방 구석구석에 미치게 두고는, 구분되지 않은 채 은밀히 여울지는 형상들 사이에서 그토록 그리던 고향을 찾아 헤맨다. 찾았다 싶으면 그 꿈결 같은 형상을 두 손으로 꼭 쥐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슴에 품고 싶으나, 아찔한 형상은 시냇물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듯 어물거리며 스러지고 만다. 그저 통탄할 일이다. 하지만 애초에 삶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상실하며 진화하는 것이다. 영구한 소유물은 결국 부패하고 스스로를 상실하지 못하는 사상은 필시 고립되어 경직되기 마련이다. 삶이란 시간의 영원한 강에 쉼 없이 흘러가

는 것, 항시 고향을 그리며 찾아 헤매야 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은 삶의 고독한 숙명이자 고결한 미덕이다. 삶이 고통이라는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동시에 인간이 삶을 배우고 성숙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고통 속에서 뿐이다. 돈 끼호떼가 밤에 잠 못 이루는 것은 그가 현실에 부재하는 돌시네아의 사랑과 ‘황금시대’를 간절히 염원하는 까닭이요, 여행의 말미에 기력을 잃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방랑기사도라는 그의 정신적 고향을 상실해버린 까닭이다. 누군가는 그의 여행을 무상하기 짝이 없다면 조롱할지 모르고, 실제로 수많은 모험 끝에 돌아온 그의 손이 텅 비어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그만의 특별한 고향을 발견하고, 찾아 헤매고, 끝에는 떠나는 과정은 이미 그 자체로 역동하는 삶의 증거이다. 이를 어찌 그저 부질없다고만 하겠는가?

얼마 전 도서관에서 우연히 ‘반자불성(半字不城)’에 대해 함석헌 선생이 남긴 짧은 글을 읽어본 적이 있다. 선생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상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삶의 각오를 여실 없이 드러낸 인상적인 글이었다. “반자불성하면 사람이 아니다.” 죽은 몸을 태워서라도 삶이라는 동그라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온전한 삶의 의미를 실현하겠다는 선생의 매서운 의지에, 나는 가슴 한편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다. 실로 나는 18년의 세월 동안 —그리 짧지만은 않은 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제대로 이루어냈던가? 학교에서 나와 내가 자신만만하게 도전했던 일들만 보아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맺은 것은 드물었다. 작년 초까지 진행했던 도시지리 연구는 결국 내 게으름으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내 책상 위에는 완성되지 못하고 서두만 장엄하게 씌어진 글들이 아래 공백에 손을 뻗은 채 쓸쓸히 침전해있다. 어느 순간에는 넘치는 시상을 견디지 못해 망설임 없이 글을 열어가면서도, 결국은 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남은 공백을 채우지 못하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면 한숨마저 나온다. 채 완성되지 못한 글들, 끊겨진 단락들을 볼 때면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한없이 불안정하고, 그렇기에 늘 무엇을 써야하는지도 모른 채, 거대한 공백을 향해 망설이며 펜을 옮겨가는 나 자신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정한 삶의 모습이 비단 나 혼자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뒷세이아』, 『돈 끼호떼』, 그리고 함석헌 선생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탄하기만 한 들판에서 어찌 계곡과 같은 매서운 물줄기가 쏟아져 내릴 수가 있겠는가. 나의 현재는 그 자체로 부족하고 불안정하기에 쉬지 않고 내리흐른다. 내가 꿈꾸는 평온한 하류에 내 물줄기는 결국 도달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끝없는 흐름 속에서 쉽 없이 부딪치면서도 이어가는 물줄기는 구차할지언정 썩지는 않고, 강하지는 않을지언정 무력하지는 않다. 타고르 역시 이 끊임없는 흐름을 염원하며 이 행들을 읊었으리라.

만일 내 평생

님을 뵙지 못함이 내 숙명이라면

님의 모습 뵙고자 하는 바램을

다만 영원히 지니게 하소서,

나는 박복하게도 글로 내뱉어야 하는 숙명을 타고 난 듯하다. 내가 밑도 끝도 없는 가슴 지축에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때로는 지평선에 드러누워 임종을 맞는 황혼의 입김이요, 때로는 수많은 신화가 파도의 고향 사이사이서 말없이 일렁이는 바다다. 그리고 내가 언어라는 그 물을 던져야 하는 곳은 오뒷세우스가 막막한 심정으로 바라보았을 망망대해이자, 돈 끼호떼가 잠 못 이룬 채 간절히 우러러 보았을 광활한 밤하늘이다. 이 미지의 영역 속에 던져진 내 그

물은 너무도 허술하여 때로는 아무 것도 붙잡지 못한 채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잡은 것들의 육중한 무게를 채 견디지 못해 찢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실의에 젖은 나의 한숨은 늦저녁 산자락에 기대어 신음하는 황혼만큼이나 짙고 깊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릴케의 작은 충고를 기억하는 수밖에. “예술가에게 뒤따르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문장을 낳는 것은 피를 쥐어짜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가까스로 노트를 열고 펜을 쥐어잡는 데까지 거쳐야하는 고민과 망설임은, 편히 앉아 책을 읽는 독자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고단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의 삶은 돈 끼호떼나 오뒷세우스의 삶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나를 움아매는 형식과 현실을 애써 뿌리치고 내 눈 앞에 어른거리는 고향을 향해, 한없이 깊어 검은 바다에 노를 저어야 하는 숙명. 그러나 이 고단한 바다는 프루스트가 묘사하듯, ‘우리 마음과 마찬가지로 무한하면서 무력한 갈망이요, 끊임없는 추락으로 부서지는 도약이요, 감미롭고 영원한 탄식’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 바다를 떠날 수 없다. 때때로 풍랑이 일고 폭풍이 내 배와 육체를 무자비하게 삼킬지라도, 나는 수평선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수면 위 노를 저으면 새겨졌다 금세 사라지고 마는 삶의 가냘픈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